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 <b>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b>  |  |
|--|--|
| <p><b>1 기출연계. 1단락</b><br/> <b>압축 제시</b><br/>                 통화정책 흐름 정리<br/>                 경기 과열 ⇨ 금리인상↑<br/>                 ⇨ 대출감소↓ ⇨ 신용공급↓<br/>                 ⇨ 수요↓ ⇨ 물가안정↓<br/>                 ⇨ 경기진정↓<br/>                 경기 침체 : 반대 과정</p>   | <p>사실. ebs 지문 한계<br/>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구조 집중력 떨어지고,<br/>                 세부내용 폭발</p>  |
| <p><b>2 P-C-S</b><br/>                 전통적 경제학<br/>                 금융감독 정책 : 개별금융=미시</p> <p>C 금융이 생산수단 X<br/>                 E 장기 경제 성장 영향 X<br/>                 C 자산 가격 버블 X<br/>                 E 개별 금융 예방 규제</p> <p>EX) 자기자본 하한<br/>                 P 뱅크런 S BIS 비율<br/>                 (배경지식)</p>   | <p>하지만,<br/>                 여전히 해법은 동일.<br/>                 주제,<br/>                 구조,<br/>                 정보가치 높은 내용,<br/>                 수능 기출 연계 흐름.</p>  |
| <p><b>3 P-C-S</b><br/>                 전통적 경제학<br/>                 금융감독 - 금융안정<br/>                 통화정책 - 물가안정<br/>                 VS<br/>                 글로벌 금융위기<br/>                 P 시스템 와해<br/>                 S 미시 + 거시 (시스템)<br/>                 C1 저금리 E.P 버블<br/>                 C2 버블 E.P 금융불안<br/>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p>  | <p>1단락<br/>                 전통적 통화 정책<br/>                 금리-대출-신용-수요-물가<br/>                 원리.<br/>                 기출 연계 배경지식</p> <p>2단락<br/>                 전통적 경제학<br/>                 PCS</p> <p>P 개별 금융회사 문제<br/>                 C 생산수단 X<br/>                 C 버블 X<br/>                 S 자기자본 비율</p> |
| <p><b>4 S 원리</b><br/>                 거시건전성 = 미시+거시<br/>                 역시 예방. +차별점</p>   | <p>3단락<br/>                 글로벌 금융위기<br/>                 P 시스템 와해<br/>                 C1 저금리 E.P 버블<br/>                 C2 버블 E.P 금융불안<br/>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br/>                 S 미시 + 거시 (시스템)</p>  |
| <p><b>5 P - S 원리</b><br/>                 P 경기 순응성 :<br/>                 경기호황↑ ⇨ 은행 대출↑<br/>                 ⇨ 신용/대출 팽창↑<br/>                 ⇨ 자산가격↑ ⇨ 경기과열↑<br/>                 불황 반대</p> <p>S 완충자본 제도 :<br/>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br/>                 ⇨ 은행 대출 제한↓<br/>                 ⇨ 신용/대출 감소↓<br/>                 ⇨ 자산가격↓ ⇨ 경기과열↓</p> <p>경기 불황 = 완충자본 사용<br/>                 ⇨ 은행 대출 제한↑<br/>                 ⇨ 신용/대출 증가↑<br/>                 ⇨ 자산가격↑ ⇨ 경기↑</p> | <p>4단락<br/>                 거시 해결책 상술</p> <p>5단락<br/>                 거시 해결책 적용<br/>                 P 경기 순응성<br/>                 S 완충 자본 제도</p>  |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제학 지문 흐름을 총 정리/집대성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1단락

2018학년도 6평 통화정책 흐름 잡았습니다.

2단락

제 수업 설명 바탕으로 보시다시피

그 당시 문제는

P 뱅크런

S 자기자본 비율 확보

였습니다.

3단락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어마어마한 부실 채권이 터집니다

해법은 거시 정책

4단락

상술하려다 흐름만 잡고

5단락

S 완충자본 제도 원리

기존 내용에 이 지문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1단락 내용 다시 가져옵니다. **전통경제학**

|  |           |   |       |
|--|-----------|---|-------|
| <b>경기 부양</b>   | 중앙은행(FRB) | 채권 ←<br>⇒ 달러  | 정부    |
|  | 시중은행      | 달러 ←<br>⇒ 채권  |       |
|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br>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sup>1)</sup>  |           |   |       |
|  | 시중은행      | C 금리 ↓ ⇒<br>E 신용/대출 ↑   | 가계/기업 |
|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br>정부의 채권 구입으로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br><br>또한, 정부가 채권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br>시중은행에는 돈이 많고, 대출 여력이 생기고,<br>대출 줘야 수익이 나고, 대출 경쟁이 붙고,<br>결국 금리도 낮아짐<br>금리 낮으니 대출 더 쉬움 |           |   |       |
|  | 가계/기업     |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br>⇒ 경기 활성화 / 구매력 증가<br>⇒ 물가 상승 <sup>2)</sup> |       |
|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br>생산 ↑ ⇒ 소득은 자본가에 집중<br>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br>결국, 사회적 불만/문제 발생<br>과거 이를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           |   |       |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진정시켜  
물가를 낮추려 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b>경기 진정</b>  | 중앙은행(FRB) | 달러 ←<br>⇒ 채권  | 정부    |
|   | 시중은행      | 채권 ←<br>⇒ 달러  |       |
|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도 결과 시장의 통화량 ↓<br>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           |   |       |
|   | 시중은행      | C 금리 ↑ ⇒<br>E 신용/대출 ↓                                   | 가계/기업 |
|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br>정부의 채권 판매으로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br><br>또한, 정부가 돈 대신 채권을 시중은행에<br>시중은행에는 돈이 없고, 대출 여력이 없고,<br>대출 수요는 많고, 결국, 금리 높아짐<br>금리 높으니 대출 더 어려움   |           |   |       |
|   | 가계/기업     |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br>⇒ 경기 안정 / 구매력 감소<br>⇒ 물가 하락/진정 |       |
|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br>생산 ↓ ⇒ 자본가가 어려움/유지<br>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유지<br>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불만/문제 해소<br>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해소.<br><br>하지만<br>자본가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 자본생산성이 낮아짐<br>= 사회에 창출하는 부가 줄어들 = 이것이 심해지면<br>= 디플레 = 부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음 |           |   |       |

1) 채권 가격이 높아짐 = 채권 가치가 높아짐 = 채권에 이자를 많이 줄 필요 없음 = 금리 낮아짐  
2) 통화량이 늘었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생산 설비는 수요를 따라오기 힘들. 따라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됨

여기에 정보추가합니다. 지문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  |           |                       |       |
|--|-----------|-----------------------|-------|
| <b>경기 부양</b>   | 중앙은행(FRB) | 채권 ←<br>⇒ 달러          | 정부    |
|  | 시중은행      | 달러 ←<br>⇒ 채권          |       |
|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br>채권 가격 ↑ 금리 ↓   |           |                       |       |
|  | 시중은행      | C 금리 ↓ ⇒<br>E 신용/대출 ↑ | 가계/기업 |
| 문제 원인 1. 저금리 ⇒ 통화량 증가+심리불안 ⇒ 버블<br>문제 원인 2. 버블 ⇒ 금융불안<br>문제 원인 3. 금융회사 대형화<br>결국 좌측에서는 이루어진 아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음<br>당연히! 해법은?<br>완충자본 제도! |           |                       |       |

### 전통적 통화 정책

경기침체 ⇒ 금리인하 ↓ ⇒ 대출증가 ↑ ⇒ 신용공급 ↑  
⇒ 수요 ↑ ⇒ 물가 ↑ ⇒ 경기호황 ↑

###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 금리인하 ↓ ⇒ 대출증가 ↑ ⇒ 신용공급 ↑  
⇒ 수요 ↑ ⇒ 물가 ↑ ⇒ 경기호황 ↑

이게 아니라  
C1 심리불안 E 안전자산 투기. 버블  
C2 버블 E 금융불안  
C3 금융회사 대형화  
**문제만 발생시킴!**

P 경기 순응성  
경기호황 ↑ ⇒ 은행 대출 ↑ ⇒ 신용/대출 팽창 ↑  
⇒ 자산가격 ↑ ⇒ 경기과열 ↑  
즉, 여기서 자산가격이 폭등하는 과정을 잡으려면?  
은행 대출을 막으면 됨!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 ⇒ 은행 대출 제한 ↓  
⇒ 신용/대출 감소 ↓ ⇒ 자산가격 ↓ ⇒ 경기과열 ↓

위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봅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출연계 흐름이 이미 보였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기출연계 흐름으로 인과 구조가 보였어야 합니다.

**1 기출연계. 1단락 압축 제시**

통화정책 흐름 정리  
 경기 과열 ⇨ 금리인상↑  
 ⇨ 대출감소↓ ⇨ 신용공급↓  
 ⇨ 수요↓ ⇨ 물가안정↓  
 ⇨ 경기진정↓  
 경기 침체 : 반대 과정

특히 기출 연계를 전제하면, 1단락에 압축 제시하는 평가원 구조를 잘 보셨어야 합니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통적 관점

결국 개별금융=미시=은행 하나 하나 해결!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해법이 나오게 된 이유 C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P-S 구조. 자기자본 하한 설정으로 해결!

**2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정책 : 개별금융=미시

C 금융이 생산수단 x E 장기 경제 성장 영향 x  
 C 자산 가격 버블 X E 개별 금융 예방 규제  
 EX) 자기자본 하한  
 P 뱅크런 S BIS 비율 (배경지식)

이제 3단락 이어집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전통적 경제학 세팅 후 비교 대조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p문제제기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C 원인이 보입니다

1. 저금리 - 버블
2. 버블 - 금융 불안
3. 대형화 - 시스템 붕괴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S 해법이 보입니다.

미시 + 거시 까지

하지만 구체적 정보가 없어요.

활용 불가.

더 자세히 봅니다. 이어지는 4단락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이 잡히지만 상식적 차원.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작은 따옴표 있으니 자세히 처리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시로는 거시를 해결할 수 없다!

끝!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미시와 거시를 비교대조 합니다.

예방한다는 것은 같은데 뭐가 다른지 잘 안 잡히는군요. 괜찮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잡았다면 완벽. 그 자체.

|     | 2단락 미시                              | 3단락 거시                               |
|-----|-------------------------------------|--------------------------------------|
| 공통점 | 예방적                                 |                                      |
| 차이점 | 개별금융 회사                             | 전체 시스템                               |
| 차이점 | 금융감독 - 금융 안정<br>통화정책 - 물가 안정<br>이원적 | 금융감독 - 금융 안정<br>통화정책 - 물가 안정<br>상호보완 |

이어지는 마지막단락 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개념 세팅을 하지만 뭘지 모릅니다.

자세하게 이해해야 써먹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주제!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인과관계 잡고!

문제가 제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인과관계 잡고!

해결책!

마지막 단락 정리하면

**5 P - S 원리**

**P 경기 순응성 :**  
경기호황↑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팽창↑ ⇨ 자산가격↑  
⇨ 경기과열↑  
불황 반대

**S 완충자본 제도 :**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감소↓ ⇨ 자산가격↓ ⇨ 경기과열↓

경기 불황 = 완충자본 사용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증가↑ ⇨ 자산가격↑ ⇨ 경기↑

다시 전체 내용 정리 봅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기출연계. 1단락**

**압축 제시**

통화정책 흐름 정리  
 경기 과열 ⇨ 금리인상↑  
 ⇨ 대출감소↓ ⇨ 신용공급↓  
 ⇨ 수요↓ ⇨ 물가안정↓  
 ⇨ 경기진정↓  
 경기 침체 : 반대 과정

사실. ebs 지문 한계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구조 집중력 떨어지고,  
 세부내용 폭발

**2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정책 : 개별금융=미시  
  
 C 금융이 생산수단 X  
 E 장기 경제 성장 영향 X  
 C 자산 가격 버블 X  
 E 개별 금융 예방 규제

하지만,  
 여전히 해법은 동일.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 수능 기출 연계 흐름.

EX) 자기자본 하한  
 P 뱅크런 S BIS 비율  
 (배경지식)

1단락  
 전통적 통화 정책  
 금리-대출-신용-수요-물가 원리.  
 기출 연계 배경지식

**3 P-C-S**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 금융안정  
 통화정책 - 물가안정  
 VS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S 미시 + 거시 (시스템)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2단락  
 전통적 경제학  
 PCS  
  
 P 개별 금융회사 문제  
 C 생산수단 X  
 C 버블 X  
 S 자기자본 비율

**4 S 원리**

거시건전성 = 미시+거시  
 역시 예방. +차별점

3단락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S 미시 + 거시 (시스템)

**5 P - S 원리**

P 경기 순응성 :  
 경기호황↑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팽창↑  
 ⇨ 자산가격↑ ⇨ 경기과열↑  
 불황 반대

4단락  
 거시 해결책 상술

S 완충자본 제도 :  
 경기 호황 = 완충자본 확보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감소↓  
 ⇨ 자산가격↓ ⇨ 경기과열↓

5단락  
 거시 해결책 적용  
 P 경기 순응성  
 S 완충 자본 제도

경기 불황 = 완충자본 사용  
 ⇨ 은행 대출 제한↑  
 ⇨ 신용/대출 증가↑  
 ⇨ 자산가격↑ ⇨ 경기↑

문제 봅니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제 + 구조 문항

1~3번 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보입니다.

4~5번 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세부내용. 물론 구조로 보면 C-E구조로 보이긴 합니다.

필요시 발췌독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제입니다.

미시 -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이 중요했죠.

틀립니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정보불충분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필요시 발췌독 또는

|     | 2단락 미시                              | 3단락 거시                               |
|-----|-------------------------------------|--------------------------------------|
| 공통점 | 예방적                                 |                                      |
| 차이점 | 개별금융 회사                             | 전체 시스템                               |
| 차이점 | 금융감독 - 금융 안정<br>통화정책 - 물가 안정<br>이원적 | 금융감독 - 금융 안정<br>통화정책 - 물가 안정<br>상호보완 |

표로 처리 가능. 하지만 정보량 불충분. 일단 넘깁니다.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확한 3단락 구조! 주제 보입니다!

**3 P-C-S**  
 글로벌 금융위기  
 P 시스템 와해  
 S 미시 + 거시 (시스템)  
 C1 저금리 E.P 버블  
 C2 버블 E.P 금융불안  
 C3 대형화 E.P 시스템 붕괴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3단락 세부내용. C-E 구조.

필요시 발췌독 갑니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구조로 가셔야합니다. 비교 대조. 표그리기.

|     | 2단락 미시                              | 3단락 거시                               |
|-----|-------------------------------------|--------------------------------------|
| 공통점 | 예방적                                 |                                      |
| 차이점 | 개별금융 회사                             | 전체 시스템                               |
| 차이점 | 금융감독 - 금융 안정<br>통화정책 - 물가 안정<br>이원적 | 금융감독 - 금융 안정<br>통화정책 - 물가 안정<br>상호보완 |
| P-S | P 뱅크런<br>S 자기자본 비율                  | P 경기 순응성<br>S 완충자본제도                 |

특히 공통점.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원적=별개’로 갈 수 있으나 필요시 발췌독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P-S 구조 잡습니다. 마지막 단락 주제 퀘션합니다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다 예방해야죠!

상식. 하향식 바탕 공통점!

상식 하향식의 힘을 꼭 확인바랍니다.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시스템은 거시 맞습니다.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완충자본, 자기자본. P-S 구조 맞습니다.

세부내용 와리가리 발췌독하면 박살납니다.

경우의 수는 2\*2\*2\*2=16 시간 안에 풀 수 없고 실수 유발 비릇 난리납니다.

주제 잡으세요. 왼쪽 표를 다시 풀어씁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경기가 (A)일 때                       | 1. 모름                 |
| (B) 건전성 정책에서는                    | 2. 아래 c를 보면 완충자본은 거시! |
|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 3. 역시 모름              |
|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 | 4. 자기자본유지는 미시!        |

|                  |                 |
|------------------|-----------------|
| 경기가 (A)일 때       | 5. 불황 - 완충자본 사용 |
|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 호황 - 완충자본 보유    |

정리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1번선지 정답 끝!

호황 - 거시 - 보유 - 미시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 A )일 때 ( B )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 C )하도록 하고, ( D )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지문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문 내용 바탕 보기는 경기 침체 해결은 못한다.

P 문제 제기

이유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C1. 금리 인하 = 대출/신용 확대 = 소비심리 위축 + 투자대상 없음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1 버블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결국 여기서 끝!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E1 버블 보이죠! 바로 관참음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C1 심리 보이죠. 바로 종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주제.

경기침체 해결 못한다.

정답 바로 보입니다.

상세 해설 1.

보기 주제 = 경기 침체 해결 못한다 = 무언을 써도 해법이 되지 못한다.

상세 해설 2.

완충자본 제도 사용 = 유동성 공급 = 신용/대출 늘어나서 = 버블 됨 = 문제 발생 더 시킨다.

하지만 역시 주제와 관련된 상세 해설 1로 이해 바랍니다.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여기까지 고생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배운 내용 그대로.

- 1. 주제
- 2. 문장구조
- 3. 문단구조
- 4. 전형적 출제 양상

잘 잡아 활용.

동시에 경제학 지문의 기출 흐름과 배경지식 전제를 봐야만 시간 안에 완벽한 답이 나온다는 흐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단어 뜻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주제+전개방식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P → S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필발, 2단락 소주제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미시, 주제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S2 P → S 필발, 단락 소주제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C: 통화량 ↑ E: 버블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필발 거시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주제 P → S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상식+하향식 바탕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P: 개별 은행 위기

S: BIS

2008 리먼 CDS 프리미엄

상식 위배

주제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 A )일 때 ( B )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 C )하도록 하고, ( D )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A  | B    | C  | D    |
|---|----|------|----|------|
| ㉠ | 불황 | P 거시 | 사용 | S 미시 |
| ㉡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30. 밑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보기 주제 해법 X S 없음 오히려 문제
- ㉣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